

행주대첩의 여성 의병장, 보시와 지혜의 역사

불광동 **밥** 할머니의
보시와 나라사랑

즉심시불(卽心施佛)

일어난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베풀고 실천하는 마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만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베풀고
헌신하는 도덕적 책임’



밥할머니기념사업회 · <밥할머니>출간위원회

"본 홍보물은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께서 밥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만중생에게 전하고자 보내주신 소중한 원고와 뜻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당부에 따라 <밥할머니>출간위원회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목차

인사의 말씀	3
‘밥’의 정신, 그 숭엄하고 넉넉한 자비로움 - 소설가 한승원 선생 특별 기고문	6
권선문	12

인사의 말씀

“보시는 지혜를 피워내기 위한 뿌리,
밥할머니의 즉심시불(卽心施佛)의 보시행을 닦아갑시다.”

지독한 결핍 및 배고픔의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존재는 다름 아닌 ‘밥’이었습니다. 일찍이 소설가 한승원 선생께서 갈파하셨듯, 밥에는 원초적인 사랑과 보시, 그리고 화합의 대자대비(大慈大悲)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 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장 많이 베푸셨기에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불자가 수행하는 여섯 가지 피안의 길, 6바라밀(六波羅蜜)의 그 첫 번째 단추로 부처님께서 왜 유독 ‘보시행(布施行)’을 가장 먼저 앞세우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베품이 없으면 깨달음의 가능성도, 상생의 문도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보시의 실천행을 완성하시어, 우리 역사상 위대한 사표(師表)가 되실 자에 로운 어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의 참혹한 전황 속에서 오직 자비와 지혜로 백성을 구출하신 밀양 박씨 성을 가진 ‘불광동 밥할머니’이십니다.

당시 군신이 도성을 버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할머니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집안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중생들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부처님의 보시를 실천한다는 즉심시불(卽心施佛)의 위대한 모범이자,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겨 몸소 구제에 나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화현이었습니다.

나아가 할머니는 부호의 배필(配匹, 남편 문씨)이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도 안주하지 않고, 나라의 국난 극복을 위해 숭선수범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에 앞장서셨습니다. 북한산 노적봉에 벼짚을 쌓아 거대한 군량미 노적가리처럼 보이게 하고 계곡에 생석회 가루를 풀어 쌀뜨물로 묘책을 내어 왜적을 물리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이어 수많은 여인들을 이끌고 행주산

성으로 가 주먹밥을 만들고 행주치마 가득 돌멩이를 날라 민·군 합심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대보시행은, 할머니가 남기신 ‘보시·지혜·화합’ 정신의 장엄한 결정체였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여정에는 실로 기적 같은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소승(小僧)이 전남 장흥의 해산토굴로 한승원 선생님을 찾아뵙고 밥할머니를 위한 글을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머뭇거림 없이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인 6월 15일 새벽 5시 56분, 가슴을 울리는 고결한 원고를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자비를 아낌없이 쏟아내신 선생님의 즉각적인 베풀, 이 역시 마음이 일어난 그 찰나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또 하나의 즉심시불(卽心施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한승원 선생님께서 망설임 없이 행하신 ‘문학적 보시’의 거대한 공덕 덕분이었을까요. 지극한 적선(積善)의 가문 위에 불과 몇 달 뒤인 2024년 10월 10일, 따님이신 한강 작가님이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전 지구적인 대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법(因果法)과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의 진리를 그대로 증명한 것으로 보시가 지닌 불가사의하고도 위대한 인과의 물결을 온 세상이 푹푹히 목도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베풀어라.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고, 중간 정도면 또 그대로 베풀며,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라. 베푸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가능성도 생기지 않는다.”

《수다보자나 자타카 (Sudhābhōjana Jātaka)》

이 오래된 경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우리 ‘불광동 절’에서는 ‘밥할머니 무료급식 공양간’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이 작은 실천은 430여 년 전 밥할머니가 보여주신 기록한 보시 정신의 부활이자,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대한국민(大韓國民)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에 태어난 만큼의 ‘밥값’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밥할머니를 삶의 모범적

인 표상으로 삼아, 주변을 돌아보고 맑은 나눔을 실천하는 보시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끝으로, 천금 같은 명문으로 이 출간의 뼈대를 세워주신 해산(海山) 한승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리며,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보여준 장엄한 기적의 온기가 대한민국인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광명으로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불기2570년 7월7일. ‘불광동 절’ 담마다나(선선) 합장.



‘밥’의 정신, 그 숭엄하고 넉넉한 자비로움

-서울 불광동의 <밥 할머니>에 대하여

소설가 한승원

서울 불광동의 <절>에서 도를 닦으며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세속 나이 72세의 선선 스님이 유월 초순의 어느 날 오후, 반승반속인인 나를 나의 남쪽 바닷가 작가실인 해산토굴로 찾아왔다.

<절>은 한반도 안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불제자(스님)들이 기거하며 도를 닦는 사찰(도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절>은 <데라>라는 팔리어에서 유래한 말로, 한자로 도장(道場)이라 쓰고 <도량이라 읽는 것>도 같은 어원이다. 팔리어는 고대의 인도지방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사용하던 말인 것이고,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쓰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데라>라는 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절이 있던 자리에 붙박혀 있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내의 5일만에 서는 장마당을 <데르장>이라 했었다. 관산읍은 명산인 천관산 아래 있는데, 천관산에는 고려왕조 시대(불교 전성기)에 145개쯤의 절과 암자가 있었던 산이다. 관산읍 5일 장은 각 사암의 스님들이 모여 드는 까닭에 <데르장> 말하자면 <절 스님들의 장>이라 불렀던 것이다.

장흥읍 안양면 울산 마을 옆에는 <데릿골>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예전에 절이 있던 골짜기인 것이다.

장흥군 유치면에는 마을이 별로 크지 않지만 <대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이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어서 <대리, 대리>라 불리다가 아예 <대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 고유의 인사법, 두 손 짚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는 방법을 <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 전통의 인사방법은 불교의 절(사찰)이 들어오고 나서, 불제자들이 절하는 법을 따라 한 것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불광동에 있는 <절>의 선선스님은 하나의 역사나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 <밥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내 앞에 들이밀었다. 아니 <밥 할머니>를 내게 안겨주었다. 내가 <밥 할머니를 내게 안겨 주었다> <내 앞에 들이밀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 <밥 할머니>의 관세음보살처럼 위대한 황금빛 자비로운 품에 안긴 것이다. 밥 할머니는 제주도 설화 속의 <만덕 할머니>처럼 자비로운 큰 인물이다.

인간은 살아 있는 한 결핍을 느끼는, 불완전의 고독한 존재이다. 그 결핍이 있는 한 불만족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리는 한 굶주림과 갈등과 싸움이 있게 마련이다.

결핍은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어린 시절의 젖배 굶음에서 비롯된다.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자비와 안식과 평화의 밥이다.

밥은 인간이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그것 대신 먹고 생명줄을 양생하는 성스럽고 숭엄한 것이다. 밥에는 원초적인 사랑과 보시와 화합의 자비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밥이 궁핍하던 시대에는 밥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다. 그 시대에는 많이 가진 자가 밥을 베풀었다. 그 베품을 통해 세상을 평등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세상을 다사롭게 품어주는 부처님의 은총 같은 자비로움이다.

그 무엇이 밥처럼 위대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밥을 얻기 위해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 투쟁한다.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에 무장군인들의 잔인한 폭압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것은 그 위대하고 성스러운 밥을 자유롭게 먹기 위해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투쟁했다.

밥에는 저항정신과 더불어 자유 민주와 평화가 들어 있다. 그것을 위하여 뜻있는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공급했던 것이다.

밥의 숭엄함에 대하여

“사람은 하늘 무서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하고 어린 시절 나의 할아버지는 나에게 가르치셨다. “하늘 조심하듯이 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일꾼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성인이 ‘밥이 하늘(식이천食而天)*’이라고 말씀하셨다. 밥을 성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않아야 한다. 밥 만드는 일이 성스러운 것이다.

사람은 밥값을 하고 살아야 한다. 농부는 농사 잘 짓는 일이 밥값이고, 어부는 고기 잘 잡는 일이 밥값이고, 머슴은 주인집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밥값이고, 의사는 병 고치는 일이 밥값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밥값이고, 웃어른께 효도하는 것이 밥값이고, 임금은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잘 다스리는 것이 밥값이고, 벼슬아치는 못 사는 백성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청렴하게 사는 것이 밥값이다. 스님은 도를 닦고 깨달은 바를 아직 못 깨달은 중생들에게 되돌려주고(회향) 그들을 제도하는 것이 밥값이다. 시인 소설가는 자기가 쓴 시나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참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밥값이다.

부엌의 살강 위에는 검은 옷칠을 한 개다리소반 하나가 놓여있고, 그 옆에는 투박한 분청사기 밥그릇 두 개와 국 그릇 두 개와 반찬용 접시 넷, 숟가락 둘과 젓가락 네 짝이 있었는데, 평소에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았고, 가끔 부리는 놈(인부)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개다리소반에 대하여 어머니가 말했다.

17세에 시집 와서 부엌일을 익히기 시작한 어머니는 그것들이 궁급했지만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었는데, 어느 늦은 봄날 아침에야 그 궁급증이 풀렸다. 식구들이 모두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구중중한 헤진 옷에 머리 쑥대 같이 부수수한 젊은 남자가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고, 지팡이를 짚어가며, 바야흐로 떠오르는 해를 등진 채 사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허름한 바가지 하나를 왼손에 들고 있었다. 안방 툇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시할머니가 그를 보자마자 “어서 오시게. 얼마나 시장하신가.”하고 나서 부엌의 어머니(손자며느리)에게 말했다.

“새악아, 저 양반 사랑방 툇마루로 모시고 밥상 차려 드려라. 살강 위에 있는 소반에다가 깨끗하게 차려라. 소반 옆에 있는 밥그릇이랑 국그릇이랑 숟가락이랑, 그것들

내려서 차려 드려라.” 어머니가 그 남자를 사랑방 뒷마루로 모시자, 그는 지팡이를 기 등에 기대놓고 뒷마루에 올라앉았다. 어머니는 부엌 살강 위의 소반, 밥그릇 국그릇 따위를 이용해서 밥상을 차렸다. 밥이 부족하였으므로 어머니는 자기가 먹던 밥을 퍼서 그릇을 채웠다. 밥상을 들어다가 사랑방 뒷마루에 놓아주자, 그 남자는 달게 빠른 속도로 먹었다. 국 한 모금, 밥알 한 개, 김치나 깍두기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 치웠다. 이 날 아침 어머니는 누룽지를 굽어서 배를 채워야 했다. 어머니가 송늬를 떠서 들고 가자, 그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며 사립으로 나가고 있었다. 개다리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오자 시할머니가 물었다. “그 양반 송늬이랑 다 마시고 가셨냐?”

어머니가 “송늬 들고 가니까 벌써 사립으로 나가서 버렸어요.”하고 대답하자 시할머니가 바야흐로 밥상을 물리고 있는 텃석부리 머슴을 향해 “만석아 싸게 가서 그 양반 모시고 오너라.”하고 말했다. 만석이 골목길로 달려 나가서 구중중한 행색의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 만석의 뒤를 따라 왔다. 시할머니가 그를 향해 “이 사람아, 밥을 먹었으면 송늬를 마시고 가야지.”하고 어머니에게 “어서 송늬 가져다 드려라.”하고 명했다. 송늬를 마시고 난 그는 시할머니를 향해 몇 번이든지 굵실굵실 절을 하고 사립 밖으로 나갔다. 시할머니가 그의 뒤통수를 향해 말했다. “밥 얻어먹을 데 없으면 언제든지 오소.”하고 잔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소반하고 밥 그릇 국그릇 깨끗하게 씻어 살강 위에 다시 올려놓아라.”

시할머니는 구걸하러 온 거지들을 거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올 때면 언제나,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바가지에 밥을 담아주지 못하게 하고, 살강 위의 소반과 밥그릇과 국그릇을 사용하게 했다.

2,

한 절의 노약해진 고명한 스님이 날마다 남새밭에서 김을 매고 벌레를 잡고 그러는 것을 안타까워 한 젊은 시자들이 호미와 괭이와 삽을 감추어버렸는데, 일을 하지 못한 노스님은 그날 낮에 공양을 하지 않고 굶었다. 오후에 시자가 감추었던 연장을 모두 내드리자 밭일을 한 다음에는 저녁 공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인간은 자기 몸무게로 세상을 누르고 있는 만큼 밥값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노스님은 생각하는 것이고 일 속에 깨달음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터이다. 그 노스님은 일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적이 있었다. 신성한 밥을 먹기 위해 일을 하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세상에는 진자리가 있고 마른자리가 있다. 사람들은 진자리에서 하는 일을 피하려 하고 마른자리에서 하는 일을 선호한다. 진자리에서 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밥값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다. 밥은 성스러우면서도 포도청처럼 엄혹한 것이다.

밥 할머니

<밥>은 하늘의 뜻이다. 그것은 자비의 불교 실천의 태두인 보시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한울님(人乃天)이라고 했다. 사람은 성스러운 <밥>을 먹고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대한민국의 서울 불광동에 <밥 할머니>라 칭송되는 여인이 있었다.

이 지역의 이름 불광동은 “부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는 지역”이므로 <불광동>이라고 붙여졌다. 불광동 지역에 그 이름을 존속하게 하는 역사 속의 큰 인물이 있는데, 다름 아닌 <밥 할머니>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자, 선조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 혼자서만 살아 중국으로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왜군의 병화로 관리들이 모두 도망가고, 행정이 마비되었을 때,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난에 빠졌다. 그 상황에서 자기 집의 창고를 과감히 열고 곡식을 풀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한 관세음보살 같은 여인이 <밥 할머니>였다. 밀양 박씨 집안에 태어나 문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여인이었다.

그 이후, 성실한 불제자였던 이 여인은 승군을 이끄는 서산대사(휴정 스님)를 돕기 위해, 많은 여인들을 이끌고 권율장군이 분전하는 행주산성으로 가서 석전을 위한 돌맹이를 앞치마로 주워 나른 큰일을 했고, 분투하는 의군을 위해 주먹밥을 제공했던 것이다.

가히 구원의 여인이었다.

불광동의 절(주지 선선 스님)은 그 구원의 여인 <밥 할머니>를 기리기 위하여 <밥 할머니 공양간>을 운영한다. 밥 할머니의 높은 뜻은 중생 사랑과 자비와 평화에 있다. 그 밥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헌신하는 선선스님의 <불광동 밥 할머니 공양간>의 보살행을 돕는 마음으로 삼가 이 글을 쓴다.

< 끝 >



보시자 :

권선문(勸善文)

보시의 화신, 밥할머니 건립 불사에 귀한 불연(佛緣)을 맺으소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자비의 손길을 내어주셨던 밥할머니의 호국 대원력을 오늘날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밥할머니의 거룩한 정신이 살아 숨 쉴 '동상'과 '정신교육관' 건립은 시대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무량한 공덕의 가피에 귀하신 인연을 모시오니, 보시의 기쁨으로 동참하시어 뜻깊은福田(福田)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29번지

‘불광동 절’ <밥할머니 공양간> 담마다나 010-6805-1335

밥할머니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9002-2050-2156-5